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6차
	일자	2021.01.18. 18:30
	장소	ZOOM 화상회의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	○	○	○	X	○	○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	X	○	○	○	○	11/13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특이사항 없음
경영경제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범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회과학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곡기 프로젝트 단체가 제안한 등록금 반환 TF 참여하기로 결정. - 사회과학대학 중앙감사위원 면접 진행 완료. 단운위 회의를 통해서 논의해서 선발할 예정. 21학번 신입생 대상 Q&A 오픈채팅방 개설해서 단과대 운영위원들이 함께 새내기들의 질문에 답변 중에 있고, 21학번 단톡방 안내 게시물과 전과하신 학우분들과 전공개방 모집제도로 전공이 변경되신 학우분등 전공변경 학우를 위한 안내 게시글 올림. - 신입생 환영회는 학과/부 별로도 진행하고 사회과학대학 차원에서 진행하되 인권교육 자료는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학과/부로 배포하기로 했으며 현재 자료 제작 중에 있음. -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성명서 작성해서 업로드 완료함.
약학대학	-
예술대학	특이사항 없음
의과대학	특이사항 없음
인문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대학 중감위원 22일날 면접 본 후에 합격 여부 의결 예정, - 새터 과별로 진행하기로 함. 관련해 별도의 인문대학 운영위원회 공지문 작성 예정. - 인문대학 인권위원회 체제 정비 중. - 학기수여식 학생회 영상도 제작 예정.
자연과학대학	-
통일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식 영상 1월 20일까지 제작 예정. - 학생회실 내에 수도관이 터져서 전자기기를 침수, 복구하려면 1달 정도 가량 학생회실에서 업무 불가능한 상황.
동아리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장 부족으로 인해 분과장 보궐선거 1월 중으로 진행 예정. 금일 19시에 룰미팅 진행

2. 보고 안건

1. 총학생회장단 보고

- 등록금환불협의체 요구 공문 및 유관부서 간 간담회 소집 공문 회신 대기
- 총학생회 단위요구안 작성 완료

총: 등록금환불협의체 요구 공문 및 유관부서 간 간담회 소집 공문 회신 대기중에 있다. 또한 총학생회 단위요구안 작성완료 하였고 추후 단위요구안 관련된 논의 진행할 때 화면 공유 하겠다. 금일 오전 11시에 개발팀과의 미팅을 진행하였다. 지난번에 대표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성적조회 오류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

고,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서버 오류가 아니었고 프로그램 오류였다고 한다. 성적 조회의 경우, 테스트서버가 있고 운영서버가 있다. 테스트 서버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뒤 그 코드를 바탕으로 운영서버로 옮긴 뒤에 성적조회가 진행이 된다. 이 테스트 서버에서 운영서버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성적조회가 지연되었다고 말씀해주셨다. 이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오류의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라고 말씀해주셨다. 이에 총학생회장단은 해당 사안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여쭙봤고, 그에 대한 답변은 학사팀과 컨택을 해서 과목별로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든지 간에 여러 방법을 강구를 해서 서버 부하라든지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달받았다. 총학생회장 보고 여기서 마치겠다.

2. 중앙집행위원회 보고

교육자치국	겨울 계절학기 교양과목 피드백조사 (1월 15일~21일)
전략정책국	한자졸업요건 폐지 관련 설문조사 (1월 11일~19일)
연대사업국	제휴 설문조사 (1월 11일 ~)
일상복지국	실무진 대상 불법카메라 교육 진행 예정(1월 21일)

3. 총학생회 산하위원회 보고

문화위원회	교내 문화체육공간 재개방 가이드라인 제작 진행 중
-------	-----------------------------

총: 지금까지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들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정: 사과대 질의있다.
 총: 네
 사과:정: 다름아니라 그때 그 등심위에서 총학생회랑 유관 부서들만 공유했던 20년도 결산안이랑 21년도 예산안 자료를 중운위 위원들끼리도 열람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 이 부분 지난 중운위 회의때도 다른 위원분이 질문 주셔서 확인해보고 답변 주시겠다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서 예산안이랑 결산안 관련해서 여쭙고 싶다.
 총: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때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 인문대 회장님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제게 전달해주면 제가 요청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난다. 인문대 회장님께서 6차 정기회의가 끝이 난후에 요청하시는 자료들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내일 즉각적으로 공문 발행해서 전달하도록 하겠다. 괜찮으신지?
 사과:정: 네 답변 감사하다.
 총: 현재 예산팀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교육비 환원율에 대한 자료와 현재 도서관 RFID기반 학술자료시스템 구축 사업안 자료를 전달 받았다. 이 또한 공유가 가능한지 여쭙보고 공유해드리겠다.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3번 논의안건으로 넘어가겠다.

3. 논의 안건

1. 등록금환불협의체

- 등록금환불협의체 구성 요구 공문 미회신 시 중앙운영위원회 대책 수립

총: 1번 등록금환불 협의체이다. 현재 금일 기준으로 등록금 환불 협의체 공문이 미회신 상태이다. 이에 총학생회장단은 저번주 금요일 1회, 금일 1회 해서 총 2번 기획처 예산팀에 전화문의를 드렸다. 현재 기획처장님께서 해당 공문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 중이고 처장급 회의를 거친 뒤에 등록금 환불 협의체 날짜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달받습니다만, 현재 회신이 늦어지고 있고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총학생회장단의 견해를 먼저 말씀 드리자면, 금일 기획처장을 대상으로 한 요구안을 작성을 하고, 익일중으로 기획처에 직접 찾아가 기획처장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이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 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질의 있는데, 요구안이라고 하면 빠르게 등록금 환불 협의체를 가동하겠다, 하게 해달라 라는 그런 요구안인지?

총: 네 큰 골자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인문.정: 네 감사하다. 요구안 작성해서 기획처장 찾아가서 면담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뭔가 지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2학기 등록금 환불에 대한 학우분들의 좀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4000명이 넘는 학우분께서 참여해주셨고, 99%가 등록금 환불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데, 약간 학우분들께 오늘 인문대학은 자체적으로 카드뉴스 발행을 통해 중앙운영위원회가 요청한 사안들이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를 보고드렸는데, 그거를 좀 인문대학 학우분들이 아니라 좀 중앙전체학우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좀 중앙차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얘기들을 해왔고, 이러한 논의들을 해왔고, 이러한 협의체를 요구했으나 학교측에서 이거에 대해 정확히 회신을 주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을 그 이후에 학우분들의 좀더 뭔가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걸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뭔가 일단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예전에 했던 해시태그 릴레이라든지 뭐 연서명 이런 것들이 있겠고, 추후에도 계속해서 회신이 없다면 결국 중앙차원에 뭔가 대자보를 게시를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의를 드리고, 인문대도 인문대 운영위원회에서도 일단은 이거에 대해 논의를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도 계속해서 회신이 늦어진다면 대자보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 네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우선 요구안을 작성하고 내일 기획처장과 면담을 진행한 뒤에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카드뉴스를 발행을 하려고 하였다. 그 요구안에는 그 공문 회신에 대한 기한을 재설정하고 혹여나 재설정된 기한에도 회신이 오지 않는다면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대자보 작성이라든지 말씀해주신 해시태그 릴레이라든지 충분히 진행할 의지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인문.정: 감사하다.

총: 네

부총: 그리고 추가로 내일 19일에 등록금 인식조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총학생회 차원에서 게시를 할 예정에 있고 내일 만약에 면담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사실보고도 방금 총학생회장이 말씀하신 보고물과 덧붙여서 나갈 예정에 있다.

총: 따라서 금차 회의에서는 해당 요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요구안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께서는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혹시 학교에서 미회신하는 이유는 안 알려주는지?

총: 제가 알기로는 처장단급끼리 일정 조율을 할 예정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예산 팀장에게 문의를 했을 때에도 동일한 답변을 받았고 오늘 문의를 했을 때도 동일한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의도적으로 등록금 환불 협의체 구성관련 공문 회신을 좀 늦게 주는 것 같다. 그래서 내일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기획처장이랑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요구안에 대한 특별한 내용, 뭐 구체적이거나 특별히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딱히 생각이 나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중운위 회의 끝나고 총학생회장단이 요구안 초안 작성을 하고 중운위분들께 피드백 받는 걸로 진행을 하겠다. 혹여나 회의가 끝이 난 후에 저희한테 의견 내주시고 싶은 대표자분이 계시면 개인톡 주시기 바란다. 괜찮으신지? 사실 현재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저희 총학생회장단과 저희 총학생회를 대표하는 집행위원장 이렇게 총 3명이 기획처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대표자분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네 감사하다. 그럼 정리하겠다. 금차 회의가 끝이 난 후에 총학생회장단의 주체로 요구안 작성을 하고 중운위 분들께 피드백 수렴하는 걸로 진행하겠다. 네 단위요구안 작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2. 단위요구안 작성

- 단위별 단위요구안 최종본 확정
- 중앙단위 요구안 확정

총: 현재 단위별로 단위요구안 최종본 취합 완료하였다. 변동사항 없으신지?

경경.정: 경경대 변동사항 없다.

간호.비: 간호대도 변경사항 없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변동사항 없다.

의과.부: 의과대학도 변동사항 없다.

통공.정: 통일공대도 변동사항 없다.

사범.정: 사범대도 변동사항 없다.

동연.부: 동연 변동사항 없다.

사과.정: 사과대도 변동사항 없다.

예대.정: 예술대 변동사항 없다.

총: 네 감사하다. 그러면 중앙단위요구안 확정짓도록 하겠다. 지금 제가 화면공유 해드리는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회의 때 발의해주신 요구사항들 개괄적인 내용들 정리해서 자료 완성하였다. 해당 요구 사항들을 중앙단위요구안으로 상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확정을 지으면 총학생회장단 차원에서 단위요구안 작성을 하고 피드백 받도록 하겠다. 우선 강의물 재사용 지양이다. 해당 요구사항을 중앙단위요구안으로 상정하는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대표자분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네 없으신 걸로 하고 해당 요구사항은 중앙단위요구안으로 상정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 등록금 사용 내용 공개와 사용처 명시이다. 이견 있으신 대표자분은 의견내주시기 바란다. 네 의견 없으신 걸로 하고 중앙단위요구사항으로 상정하도록 하겠다.

통공.정: 공대 한말씀 드려도 되는지?

총: 네

통공.정: 저렇게 써서 제출을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안 알려줄 것 같기도 하지만 알려주더라도 좀 멍뚱그러서 알려줄 것 같아서 구체적이라는 단어를 추가시키면 어떨지 말씀드리고 싶다.

총: 네 알겠다. 해당부분 반영하여서 내용 구성하도록 하겠다.

부총: 일단 지금 보여 드리는 건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적어서 보여드리는 것이고, 내용이 확정이 되면 이후에 줄글로 다시 정리해서 요구안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총: 네 다음 환경, 방호 노동자 휴게공간 개선과 처우개선 관련된 요구사항이다. 이견 있으신 대표자분들께서는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간호.비: 이견은 아닌데, 조금 걸리는 게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학교입장에서 학생회가 왜 이것을 요구를 할까 라는 점에서 좀 탄지가 걸릴 것 같다. 해당 부분이 약간 노조라든지 학교 근로하시는 분들의 회 안에서 요구해야할 사항인데 왜 학생들이 할까 그러니까 너네 학생들의 요구안이라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컷 당할 것 같아서 이걸 좀 학생회가 왜 제시하는지 좀 관련지어서 요구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총: 네 의견 감사하다.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내주시기 바란다.

부총: 일단 관련해서 총학생회에서도 관련 공약이 있는데, 저희가 그 공약을 낼 때 의도는 그러니까 환경, 방호 노동자들의 노동활동이 그 대상을 학생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우나 그 노동환경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나 편의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때문에 학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라는 명분으로 저희가 공약으로 제시를 하였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도 비슷한 내용으로 가면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간호.비: 네 그러한 이유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총: 네 알겠다. 네 해당 내용 또한 의견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내규 폐지와 관련되어

논의 진행하도록 하겠다. 해당 내용자료는 인문대회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이고 해당 내용에 대해 정독을 한 뒤에 논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중앙운영위원회 공지방에 파일 올려드리도록 하겠다. 56분까지 정독을 하고 논의 진행하도록 하겠다. 네 정독시간이 모두 끝이 났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다. 우선 해당 의견 내주신 대표자분이 간략한 설명 해주시면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인문.정: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문대학 단위요구안에서 작성을 했었고, 근데 작년에 단위요구안 답변에서 중앙운영위원회와 논의한 후에 결정 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별다른 논의가 진전된 것 같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넣은 것이다. 그리고 엄연히 학생자치기구 선거는 학생자치라는 영역 안에서 이뤄지는데 이것을 학교 측에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생각 하에 인문대학은 인문대학 운영위원회 단위요구안에도 넣었고, 중앙운영위원회 단위요구안 차원에서도 넣는 것이 어떨까 라고 제의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학생자치기구 내규에 따라서 학생선거지도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었다. 그 과거에 인문대학 학우분께서 동아리연합회 부학생회장으로 출마하셨는데, 그 선거 과정 중에 선관위의 여러 부정이 있었고, 그거에 항의해서 학우분께서는 투표 보이콧을 진행하였다. 이때 학생들이 만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해당학우 사안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개입을 해서 학생선거지도위원회를 개설을 하였고 그 결과 그 학우분께 일방적인 징계처리가 내려졌고 그 사안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이런 사건을 봤을 때, 학생자치영역에 학교측이 개입하는 여지를 만드는 이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내규를 폐지하는 것이 인문대학은 옳다고 생각을 했다.

총: 네 저도 해당 선거지도관리위원회의 배경을 조사를 좀 해봤는데, 아까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선거지도관리위원회의 소집은 해당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관련 위원회 소집을 요청을 해서 소집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제가 해당 내규를 살펴보았을 때의 문제점은 현실반영이 너무 안 되어있다 너무 구시대적인 회칙이 좀 많다 라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폐지가 아니라 해당 내용을 개정을 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통합적으로 모두 다 논의를 할 수 있는 tf를 구성을 해 달라 라는 내용의 요구안을 작성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인문.정: 인문대학 발언해도 괜찮은지?

총: 네

인문.정: 저도 그 학생회장님 의견에 동의 하는게, 이 학생자치 선거지도내규를 보면 추후 뒤에 조항들, 1,2,3,4 그 앞 조항 말고 뒷 조항들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적용되는 부분도 일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작년 답변 같은 경우도 중앙운영위원회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협의하는 tf를 만드는 것으로 중앙차원에서 단위요구안을 작성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총: 네 감사하다.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간호.비: 이것을 폐지가 아니라 개정으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앞에서도 다들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따로 이유는 붙이지 않겠다. 하지만 다만 이제 요구를 할 때 지금 요구사항으로 써주신 거에는 폐지로 되어있고 이걸 개정으로 바꿔서 요구를 하신다는 건데, 이게 개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개정을 하는 규칙이 또 있을텐데 그 규칙에 학생대표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중앙단위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있으니까 중앙단위와 함께 개정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서 요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총: 네 그래서 사실 개정, 폐지를 중앙운영위원회가 일관된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개정, 폐지라는 워딩을 사용하는 것보다 tf를 구성을 하고 그 tf 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다.

간호.비: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총: 네 해당내용에 대해서 의견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교내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 검토 하도록 하겠

다. 해당 파일 또한 인문대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해당 내용도 2분간 정독시간 갖도록 하겠다. 네 정독의 시간이 끝이 났다. 해당 내용 또한 발의해주신 대표자분이 배경설명 해주시면 보다 이해가 편할 것 같다.

인문.정: 이 사안은 작년을 제외하고 매년 한 번씩 있었던 것 같다. 학우분들께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중 하나로 대자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대자보에 학교 측에서 스티커와 같은 것을 붙여서 검인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 좀 관련된 사안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내용 4조 3항의 내용을 보시면 그 홍보물에 대한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면 관리부서는 검인을 거부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학생분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학내의 건전한 토론문화 자체를 막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삭제를 건의해 드린 거고, 이것 역시 작년과 동일하게 인문대학 단위요구안측에서 요청을 드렸고 중앙운영위원회와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 역시 별다른 논의가 존재하지 않고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중앙차원에서 단위요구안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드린 것이다.

총: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은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경경대 의견있다. 이 검인 자체가 검인 거부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표현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동의하나, 근데 그 개인의 의견 표출에 있어서 타인의 사생활 침해나 특정인 비방 등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인 과정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검인 과정에서 개인의 의견 표출이 침해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개인의 의견표출이 최대한 침해되지 않는 특별조항 같은 거를 논의를 통해서도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다. 아예 없애는 거는 오히려 그 개인 표현 보장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나 이런 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부총: 방금 경경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자보 내에 표현 범위가 어떤 특정인의 어떤 인신공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익명성을 침해하는 데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동의를 한다. 다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대자보 검인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결정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객관적인 기준을 우리가 설립을 해서 이 대자보 문화를 이어나가야 되는지 그것에 관한 논의도 좀 이어져야 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이 세척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는 관리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운위에서 논의를 좀 해봤으면 한다.

경경.정: 추가의견 말씀드리면 부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나,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한다면 그런 이 삭제가 되었을 경우에 무자비하게 게시되는 그런 대자보에 있어서 방지책이나 이런 대안책을 제시를 해야만이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삭제를 논할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되지 않나 생각된다.

간호.비: 저는 경경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방을 하는 게시물이거나 아니면 사생활 침해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검인하는 주체가 학교에만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해당 세척에서 추가를 하여서 검인을 삭제를 당했을 시에는 학생 측과 담당자간에 무언가가 있어야한다 이런 것들을 추가 하는게 제일 낫지 않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반박할 수 있는 학교에서 왜 검인을 삭제했는지라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항을 추가하는게 어떤지 의견을 드리고 싶다.

경경.정: 경경대 관련항 추가에 대해서 동의한다.

사과.정: 사과대 의견 있는데, 저희도 대자보 검인과 관련해서 지금 사과대 단위요구안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 저희는 해당 내용을 가져갈 때 그러니까 저희 단과대에서 가져갈 때 대자보 검인 관련 협의체 구성으로 네

이밍을 해서 관련내용으로 가져가고 있다. 근데 지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대자보를 통한 교내 홍보물 게시를 통해서 학우분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부분에는 모든 대표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따라서 관련해서는 협의체 마련으로 가져가는 게 어떤가 싶다. 이제 협의체 마련으로 가져가면 이거에 대한 대안, 그러니까 학우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당 부서가 뭔가 자의적으로 검인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서 해당 조항의 삭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논의테이블 마련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한다. 그리고 2020년도 리더스포럼에서도 학교측이 대답을 해주신 게 아무래도 중운위와 함께하는 논의테이블 마련 부분이었기 때문에 해당부분으로는 단위요구안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제안 드린다.

간호.비: 저도 사과대 의견에 동의한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중운위와의 논의를 약속했는데 하지 않아서 이 부분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그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경경.정: 경경대도 협의체 구성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해결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협의체 구성에 관해서 동의한다.

부총: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볼때 일단 이 선거지도내규라든지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 세칙을 저희가 어떤 안에 제시하는 것보다 학교의 답변을 토대로 중운위와의 논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쪽으로 이 두 요구안을 합쳐서 그렇게 제시를 하면 될까 하는데 다들 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간호.비: 네 동의한다.

예대.정: 예술대학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학 동의한다.

의과.부: 동의한다.

총: 다들 동의 하시는지?

인문.정: 인문대학도 동의한다.

사과.정: 사과대학도 동의한다.

통공.정: 공대도 동의한다.

총: 네 감사하다.

사과.정: 죄송한데 선거지도내규 폐지에 대해서 개정으로 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라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사과대에서는 선거지도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단위요구안을 지금 작성했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선거지도위원회의 존속이유가 약간 궁금하다. 그니까 저희가 단위요구안으로 선거지도위원회내규를 개정해야 된다고 제시를 하려면 최소한 선거지도위원회의 어떤 존속이유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할 것 같은데, 저희단위는 사실 아까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그 동아리연합회 선거가 2014년도 11월에 있었던 선거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아직 그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 당시 그거에 대한 그 학우분과 학교 측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학교측의 소송비용을 그 학우분한테 지금 청구한 상태이다. 그래서 저희단위가 생각했을 때에는 선거지도위원회 라는게 규정상에 있고 그것에 존속되는 한 학교측에서 얼마든지 뭔가 마음을 먹으면 학생들의 자치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부분될 것 같아서 선거지도위원회를 아예 폐지해야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게 개정이라는게 존속은 해야 되는데 현 실정과 맞지 않아서 바뀌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라서 혹시 다른 대표자님들은 선거지도위원회가 왜 존속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개정으로 해당 안을 가져가야 하는지가 약간 의문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의견 나누고 싶다.

간호.비: 간호대학 발언하겠다. 저도 마찬가지로 선거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학생회라는 단체 자체가 학생자치기구인만큼 학생회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의 개입 없이. 다만 여기서 이제 내

려가면 뭐 여기 써있는 것도 이제 다 재학생들의 직접선거와 같은, 맞는 말들 써있고 근데 이것도 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재학생 말고도 재적생으로 하는 단위도 있으니까 뭐 그런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직접선거가 포인트인 것 같다. 그리고 밑에서도 뭐 각 단위의 시행세칙을 따르다와 같이 학생회 시행세칙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선거인명부 같은 것을 학생회에게 제공을 해 준다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선거인명부가 개인정보여서 원래 학교에서 제공을 하지 않는데 해당 지도규정이, 내규가 있음으로써 학생회에게 이런 개인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에 대한 명분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단순히 학생회 선거를 부정하면서 지도를 한대의 내규라기보다도 더 원활한 선거를 도와주는 내규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만 개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였다.

사과.정: 네 답변 감사하다.

인문.정: 네 인문대학도 간호대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동일하게 그 선거지도위원회를 비롯해서 앞부분에 있는 여러 학생자치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조항들을 삭제하는 건 동의하는데 뒤에 투개표랑 아까 말했던 명단제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존속이 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학생자치지도 선거지도내규 개정에는 동의를 하고 선거지도위원회 폐지에도 동의를 하는 입장이다. 약간 네이밍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과.정: 네 답변 감사하다.

부총: 지금 논의되는 것을 보니까 이 내규가 지금까지는 선거지도를 명목으로 존재했다면, 차후부터는 선거의 지원을 위해서 작용할 수 있는 내규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중운위에서도 논의를 조금 더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다.

총: 네 다들 추가 의견 없으신 걸로 하고 다음 요구사항이다. 학과 부학생회장장과 집행부장의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요구사항이다. 이견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자유롭게 발언해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경경대 질문 있다.

총: 네

경경.정: 여기서 얘기되는 집행부장이 학과 내 집행부장인지 아니면 다른 일원인지?

총: 학과 내 집행부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경경.정: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게 저희 경경대 내에서 특정학과의 경우 집행부장이 따로 있지 않는 학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집행부장 말고 타 부장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 학과들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이 집행부장에 대해서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어떤 역할을 하는분을 말씀하시는건지?

총: 제가 알기로는 국장들을 통합해서 부르는 워딩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부총: 그러니까 집행부서들의 장을 집행부장으로 지칭하는 것 같다.

경경.정: 그럼 관련내용에 있어서 집행부장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총: 네 알겠다.

사과.정: 혹시 가능하다면 단과대의 집행위원장의 직책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게, 현재 사실상 단과대의 집행위원장이 이제 단과대의 어떤 집행부의 활동을 관할하고 총괄하는 역할인데 국장에게만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네 가능하다면 단과대 집행위원장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총: 해당 집행위원장이라 함은 각 단과대학별로 회칙이 상이한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

사과.정: 네 알겠다.

인문.정: 근데 궁금한 것이 그럼 사과대는 국장들은 장학금을 받는데 집행위원장은 장학금을 못받는 현재 그런 상황인지?

사과.정: 네 인문대는 두 분 다 받으시는지?

인문.정: 네 저희는 다 받는다. 근데 저희도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몇인까지는 주고 몇인이 초과하는 국장이 생기면 안주고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다.

사과.정: 네 감사하다.

총: 해당 내용은 사과대 요구안에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다.

간호.비: 그거 그 간호대 같은 경우도 인원수 제한이 있어서 못받는 인원이 있긴한데 저희는 그냥 집행위원장도 국장단으로 넣어서 명단을 제출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었다.

총: 네 그러면 중앙운영위원회 요구사항 정리하도록 하겠다. 강의물 재사용 지양에 대한 의견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 등록금 사용내역 공개와 사용처 명시 작성시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환경, 방호노동자 휴게공간 조성 및 처우개선 같은 경우에도 학생회가 해당 요구사항을 왜 요구하는지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내규 폐지와 교내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 4조 3항의 삭제와 같은 내용은 통합하여서 협의체를 구성하자 라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또한 학과 부학생회장장과 집행부장의 장학금 지급의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혹시 제가 빠트린 내용이 있는지?

예술.정: 예술대학 하나 발언해도 되는지?

총: 네

예술.정: 빠트린건 아니고 제가 저번 회의때 저희 단과대에서 입학금 관해서도 환불 요구가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중운위 차원에서 등록금 환불 논의를 할 때 부차적으로 입학금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총: 말씀하신 부분에는 이미 간담회 요청 공문을 보낼 때 입학금과 실험실습비 등 등록금 사용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관련 내역을 요구하겠다고 전달을 한 바 있다.

예술.정: 네 감사하다.

총: 네 논의안건 2번 관련한 추가의견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

4. 기타 안건

총: 기타안건이다. 기타안건까지는 아니고 여러 단과대에서 실험실습비 내역 공개에 계속해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처간 간담회 요청 공문에 해당 실험실습비 공개내역 포함하였고 우선 대표자분들께서 선제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것이 관련해서 대학장과 단과대학장과 단과대 교학지원팀장과의 미팅을 통해서 실험실습비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관련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교내의 실험실습비운영 내규가 있다. 제 7조 실험실습비 공개 대학장은 실험실습비 운영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실험실습비 사용계획과 집행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1. 공개의 방법은 학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학과 게시판에 게시한다. 2. 학년도 초 매년 4월중에는 실험실습비사용 내역서를 공개한다. 3. 학년도 말 매년 12월 중 실험실습비 집행 내역서와 세부지출 내역서를 공개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 해당 조항에 의거해서 대학장과 교학지원팀장님과의 미팅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해당 파일은 제가 중운위 끝나고 공지방에 업로드 해드리겠다. 혹시 기타안건에 관한 추가의견 있으신지?

예술.정: 예술대학 실험실습비 관련해서 이미 학교측에 질의사항 다 전달해서 실험실습비 내역을 공개를 다 받은 상태고 근데 좀 질문이 있는데 공대 회장님께서도 실험실습비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공대에서는 이런 내역공개를 못 받으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게시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궁금했다.

통공.정: 저희 공대는 아직 예정된 기간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2월까지 결론을 짓고 3월, 4월중에 공개를

하시겠다고 말씀해주신 상태이다. 저희가 의문을 품었던 부분은 1인당 배정된 금액이 일단 너무 적다는 것이었고, 그 사용처를 공개할 때 구체적으로 공개한 게 아니라 이 영역에 이정도 금액을 썼다 라고 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뭐 어떤 부품을 몇 개 샀는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좀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

총: 네 감사하다. 추가의견 있으신지?

간호비: 실험실습비에 관련해서 학장님하고 교지팀장님하고 미팅하는 건 언제까지 해오면 되는지?

총: 행정부처랑 간담회 전까지 자료조사 해오시면 간담회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다. 네 유관부서간 간담회 요청 공문 또한 금일 중으로 해당 부서에 전달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회신이 오면 즉각 공유해 드리겠다. 네 추가의견 없으신 걸로 하고 중앙운영위원회 6차 회의 마치도록 하겠다. 수고 많으셨다.

회의를 폐회합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